성도가 죽어도 사리[舍利]가 나온다

(고전3:10~15)

10.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2.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14.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성도가 죽어도 사리[舍利]가 나온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 사리가 뭡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용어 이해를 위해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참된 불도 수행의 결과로 생긴다는 구슬모양의 유골'이라고 돼있습니다.
이 말이 재밌어요, 참된 불도 수행의 결과로 '생긴다는', 즉 '생기는'이 아니라 '불교신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이라는 뜻이겠지요, 다시 짧게 말하면 '소위'
상식적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것 아닙니까?
수련이 깊은 내공이 쌓인 그런 스님들께서 돌아가신 뒤에 그 시신을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화장을 다비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화장을 하고 나서 그 재를 살펴보면 그 속에 구슬 모양의 결정체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리에요.
석가모니가 돌아가실 때도 그랬고 성철스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사리들만 모아놓은 특별한 사찰도 있고, 또 사리를 아주 신성시 하면서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내공이 깊게 수련이 잘 되어진 스님의 시신을 태울 때 나오는 사리는 사전에서 '수행의 결과로 생긴다는, 소위 불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러한 단서가 붙는데, 성도들이 죽어도 사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끼리 얘기하자면 반드시 사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단, 성도들이 죽었을 때 사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시신을 태워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일생, 이 땅 위에서의 삶 전체를 불 속에 넣어봄으로써만 사리가 발견될 수 있고, 그 발견된 사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천군천사들만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확인할 길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사도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바는 반드시 불 시험을 통하여 사리가 발견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과정이 있게 될 것이라는 얘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니까 제가 56세인데 지금 죽는다면 56년의 일생을 주님이 오실 때 불 속에 집어넣어봐서 그 속에서 사리가 나오면 나는 성도로 산 것이고, 사리가 나오지 않으면 성도로 산 것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물론 적게 나오고 많이 나올 수는 있지만, 안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도로 살았다면.
부르심을 받고 구별된 사람들의 무리 안에 속한 자로서 살았다면 반드시 사리가 발견되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바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구한 영웅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재계 순위 10위 안에 드는 재벌의 총수로 삶을 마감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스티브 잡스 같은 혁신적인 리더로서 세상을 주름잡다가 죽은 분도 있습니다.
대학자와 석학으로 사시다 돌아가신 분, 대통령 직무를 마치고 돌아가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의 일생을 다 불 속에 집어넣어봅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 살다 돌아가신 분도 잿더미만 남을 수 있고, 스티브 잡스 같은 이 땅 위에서 혁신적인 인류의 리더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의 일생을 불 속에 집어넣어 봐도 사리라고는 좁쌀알만큼도 발견되지 않고 잿더미만 남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일생이 사리가 남는 일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성도로서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져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사리를 발견할 수 없지만 사리가 발견될 수 있는 삶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 얘기를 사도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거예요.

하여간 간단히 말해 우리 일생이 사리가 남는 일생이 되려면,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말하는데,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된다는 얘깁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의 목사님을 잘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일생이 불 속에 들어간 뒤에 사리가 남을 것인지 안 남을 것인지가 결정되는 아주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볼로 파다, 바울 파다, 게바 파다, 그리스도 파다, 난리를 치는데, 문제는 너희들이 따르는 지도자에 의해서 너희들의 성도로서의 일생이 사리가 남는 일생인지 아닌지 알고나 따라라 이 얘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사도바울이 또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경고조의 말씀으로 얘기하십니다.
10절에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고린도교회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모이게 돼있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름 받아서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교인이 성도가 되게 할 때, 이게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는데, 교회에 온 교인들을 성도로 세우는 것이에요.
이럴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성도로 세울 때 조심하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분되어진 사람들의 무리를 말합니다, 구분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구분되어집니까?
성도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구분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볼 때 구분되어지는 게 성도라는 얘기에요.
그러므로 성도로서 세워짐이 확인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성도로서 살 때 성도라는 말의 의미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성도 아닌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구분되는 자들의 의미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안에 들어가 살 때 성도로 구분되어짐이 나타나려면, 교회로 모였을 때 아볼로, 게바, 바울 같은 목사님들이 잘 가르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성도로서 준비가 되어서 세상에 나갈 때 구분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구분되어짐이 없도록 교회에서 가르쳐진다면 문제라는 겁니다.
목사님으로서 내가 가르친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아무 구분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래서 그 교인들의 삶을 주님께서 오셨을 때 불 속에 집어넣어 보고, 그랬는데 금과 보석과 같이 불을 견뎌낼 만한 사리들이 남지 않으면 내 목회는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30년을 했든 완전히 의미 제로의 목회가 되고, 잿더미의 목회가 돼버린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조심할지니라'라는 말씀을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 자신이나,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 같은 세우는 역할을 맡은 자들에게 지금 경고조로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교인의 삶을 불 속에 집어넣었을 때 사리가 남는 성도가 되고, 성도로서 세워지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사리라고 하는 것이 성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태움을 말하는 것이고, 종지부를 찍는다는 뜻이고, 중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단시키려는 불, 없애버리려는 불, 태워버리려는 이 불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영원성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성만이 중단이 없고 태워지지 않고, 잿더미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그 재료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서 불을 견뎌내고 그 일생을 태워봤을 때 결정체가 사리로 남으려면,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의 삶 속에서 영원성의 성분이 추출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마주 대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서로를 향한 말과 행동 속에 영원성의 성분이 추출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결혼해서 40년 50년을 부부로 살았는데, 그 부부생활을 불 속에 집어넣어 보았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것은 그 부부생활 속에 영원성의 성분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에요.
25세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뒤 80세에 죽을 때까지 55년 동안 기르고 교육하고 애쓰고, 결혼한 뒤에는 기도하면서 자식과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불 속에 집어넣었을 때 자식과의 관계에서 영원성의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면 사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중단시키고 끝내고 없애고 소멸시키는 불을 견뎌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에요, 성도라는 것은 삶 속에 나가있을 때에 성도일 수 있으니까.
교회 안에 묶여있을 때는 성도가 아니에요.
모두가 성도일 때는 성도라는 말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 나가서 사는 삶에서 성도의 의미가 나타나는데, 직장생활에서든 가정생활에서든 친구를 만날 때든, 스승을 만날 때든, 애인을 만날 때든, 반드시 그 삶의 내용 속에 영

원성의 성분이 있어야 성도라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가 누구냐?
이 지상에서 외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똑같은 직장생활 가정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삶을 불 속에 집어넣어 봤을 때 영원성이라는 추출물이 생겨서 사리가 남은 자들, 이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영원성의 성분이 일상의 생활에서 추출될 수 있고 사리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키워지는 겁니까?
예수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다 교인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원성이 남습니까?
자,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교인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자녀문제로 고민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자녀문제로 상담을 하게 될 때, 목사님이 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이 사람을 성도로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건축자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다가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을 성도로 바꿉니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위에 세워진 성도를 뜻하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2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것밖에 모르는 사람이 성도를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자녀문제 때문에 찾아와 상담하는 이 부모를 다른 부모들과 구분 짓는 성도로 세우려면 십자가를 일깨워주는 겁니다.
내 죄에 대해서 십자가를 일깨워줌으로써 교인이 되었어요, 근데 이 교인이 세상에서 성도가 되게 하려면 세상에서 자녀를 키우는 일에서 성도가 되게끔 해야 성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 있을 때는 내 죄를 보고 내 죄 사함만을 기억하고 구원을 확신하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성도가 되려면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식 앞에 나가야 되고, 직장 앞에 나가야 돼요.
이때 주님의 십자가를 일깨워주면서 자식에 대해 죽은 자임을 알고 자식에게 쏟아 부었던 마음을 회수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게 될 때, 자식에 대해서 갖는 부모의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자식을 등지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 십자가를 붙잡고 자식에 대해 죽어서 자식을 등질 때, 이 자식은 부모가 있지만 부모의 마음을 받지 못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그 자식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부모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영원성이 들어와서 영원성의 성분을 갖고 있는 그 재료들에 의해서 그 삶이 채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떻게들 가르치는가 하면, 자녀문제로 고민하며 울상을 짓는 교인들에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이 땅의 자녀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해답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부모와 함께 진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자식이 컴퓨터 그만 하고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시며, 결혼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얻게 해주시고…'
전부 이 땅에 관해 우리가 생각하는 답,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지혜는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답을 찾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자식문제를 내가 느끼고 목사님이 느끼고 그리고 답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평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과의 관계의 삶을 불 속에 집어넣었을 때 영원성이 하나도 없이 잿더미로 변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50년 60년 자식을 길러도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도를 가르치고 교육하면서 50년 60년 목회를 했는데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여기서 해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가르친 교인의 삶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사리가 많이 나와, 자녀관계의 삶에서도 영원성의 성분이 들어있는 사리가 나오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녀관계를 주장하시고, 직장생활을 한 삶을 불 속에 집어넣어 봐도 영원성의 사리가 많이 나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런 영원성의 사리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내가 가르친 성도의 삶에서 사리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내게 상급이 큰 거예요, 가르친 사람으로, 전도한 사람으로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세워가는 입장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꼭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전도하면서 세워간다는 입장에서는.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가르친 교인들이나 내가 전도를 해서 교인이 된 이웃의 형제자매들이 그들의 삶에서 사리가 나오지 않아요, 영원성의 성분이란 십자가에서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죽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만이 영원성을 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영원성을 담고 있는 것인데, 내 마음이 이 땅에 살아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원성의 성분을 갖고 있는 뜻과 계획이 내려올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문제를 갖고 오는 교인들이나 이웃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권면할 때는, 십자가에서 무조건 죽어서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세상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성의 성분이 들어있는 뜻이 내려오게 돼있는데, 이 영원성의 성분이 들어있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면 내게 아무 상급이 없으니까, 목회를 40년 50년 하고, 전도를 100명 천 명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의 뜻을 '해를 받는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로 세우려고 애쓴 목회 뒤끝에는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다'는 의미는 그 목사님이나 그렇게 전도한 사람 자신도 일생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의 일생조차도 영원성의 성분이 남아있는 사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끝이다, 이 뜻입니다.
불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전하는 모든 자가 전할 때는 그 듣는 사람들의 구원만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전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전하는 자 자신의 일생도 불 속에 집어넣어 봤을 때 불을 견디지 못하고 잿더미만 남게 돼서, 영원성의 성분이 들어있는 사리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냥 끝인 거지요.
따로 구원이다 뭐다 얘기할 게 없다 이겁니다.
반드시 전하는 모든 자가 불을 통과해서 구원을 확증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한 자가 목사님이 세상에 나가 세상 문제에 부딪혀서 하나도 세상 문제에 대해서 영원성이 담겨져 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식문제가 있으면 자식을 내가 생각한 답으로 끌기 위해 패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내가 자식을 교육하겠다고 발버둥을 쳤어요.
돈 문제 관계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접했습니다, 교회 건축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 목회에 대해, 죽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런 목사님의 일생에서 사리가 남겠느냐 이거에요.

성도의 사리는 영원성의 성분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내 삶에서 표현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순간이라도.
사리는 스님들의 시신을 태울 때만 발견되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라면, 이 세상 삶 속에서 구분되는 성도라면, 사는 방식이 달라야 되는 그런 성도라면, 반드시 그의 일생을 불 속에 집어넣어 보았을 때,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불을 견뎌내는 영원성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삶의 순간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의 성도됨은 이 세상 속에서 성도 아닌 자들과 살 때에 확인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면서 영원성의 성분이 담긴 순간들로 채움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날 불 속에 우리 일생이 들어갔을 때 반짝거리고 찬란한 사리들로 가득가득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